법무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16.(월)

“폭력의 그늘 벗어나 다시 햇볕 아래로” 범죄피해 극복 모녀 수기, 법무부장관상 수상

- 제6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가 주최하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후원하는 **「제6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대상(법무부장관상)**에 전(前) 남편의 폭력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한 모녀의 이야기를 담은 A의 **“다시 햇볕 아래로, 희망을 잇는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26. 11. 24.(화) 14:00 CG아트홀(서울 논현동) 제19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2008. 11.부터 매해 개최되는 행사로,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위로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은 2016년에 시작된 행사로서, **실제 범죄피해를 겪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범죄피해 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제6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에서는 **’전(前)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어린 딸 마저 전(前) 남편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등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으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현재는 당당히 범죄피해를 극복한 모녀의 희망수기(A 당선작)‘를 영예로운 대상작(법무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최우수상 2편(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상), 우수상 3편(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각 선정

대상 당선작(“다시 햇볕 아래로, 희망을 잇는 사람”)에 대해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시상과 낭독이 있을 예정이며, 향후 **범죄피해 회복 희망 수기 모음집**을 제작하여 전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공모전 당선작(총 6편)**

부문	저자	주요 내용
대상 (법무부장관상)	A	**(제목) “다시 햇볕 아래로, 희망을 잇는 사람”** 전 남편으로부터 범죄피해(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입은 부인과 어린 딸이 오랜 시간 함께 힘든 고통을 겪으며 범죄피해를 극복한 희망수기 작(作)
최우수상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상)	B	**(제목) “다시 희망을 찾다.”** 괴한에게 남동생을 잃은 유가족이 서로 슬픔을 위로하며 참담한 고통을 함께 극복한 희망수기 작(作)
	C	**(제목)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어머니의 고통을 위로하고 아픔을 곁에서 함께 공감하며 범죄피해를 극복한 희망수기 작(作)
우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D	**(제목) “10년의 인연, 다시 시작된 나의 꿈”** 타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가정폭력을 당한 후 힘들게 범죄피해를 극복한 희망수기 작(作)
	E	**(제목) “상처 너머,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 종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그동안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원한 내용의 희망수기 작(作)
	F	**(제목) “내 인생 가장 위기의 순간”** 오래전 이상동기 범죄피해를 입고 긴 시간 트라우마를 겪으며 어렵게 범죄피해를 극복한 희망수기 작(作)

붙임 제6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대상작 1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 장 반 지 (02-2110-3870)
		담당자	검 사 강민정 (02-2110-42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6회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대상작

다시 햇볕 아래로, 희망을 잇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제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변해갔습니다.
前 남편은 저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제 어린 딸 마저도 학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은 어린 딸이 겪어야 했던 상처였습니다.
저는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버티자고 다짐하였고, 저의 슬픔과 두려움은 감춘 채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폭력의 두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다음 날이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딸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할지, 용기내서 힘들게 꺼낸 이야기가 누군가의 심사를 받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았고, 제 아픈 사연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은 또 다른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모녀의 현실을 더욱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는데 前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같이 어린 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딸 앞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썼고 내 딸에게는 세상이 안전한 곳이고 엄마가 곁에 있으니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던 중, 우리 모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前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에 저희 모녀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학자금, 생활물품 등을 지원해주셨고, 어린 딸의 불안정한 마음의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도움은 우리 모녀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준 소중한 손길이었습니다.

특히,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지원해 주신 제주도 가족여행 심리회복프로그램은 항상 현실적인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우리 모녀가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 모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저에게 알려주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도 연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아픈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애쓰시며 저와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죄피해를 직접 겪어 보니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해 주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다 보니 조금씩 제 현실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제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게 되었고, 아직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게 주어진 일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뜻한 손길을 그대로 전부 되돌려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으로 그 마음을 충분히 이어갈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과거의 저처럼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지금의 아픔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상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햇볕 아래로 나온 저와 딸아이처럼, 다른 범죄피해자에게도 언젠가는 두려움 대신 밝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도움을 받고 일어선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도움을 기다리던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의 일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